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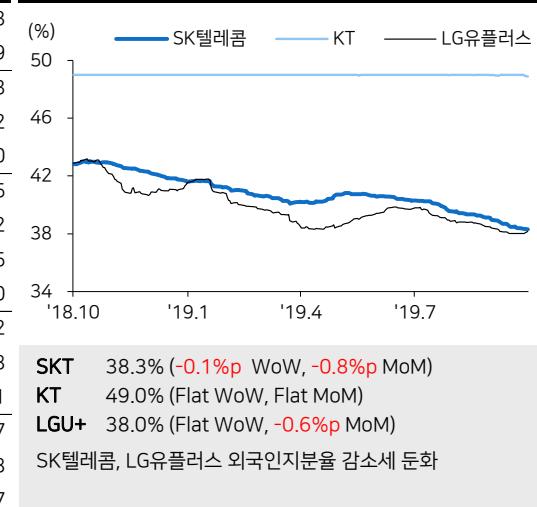
2019.10.14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KOSPI	0.6	-0.2	-2.0	-8.5	13.4	13.4	0.9	0.9	2.3	2.3	
통신업종	0.8	-0.4	-6.4	-3.7	13.7	13.7	0.7	0.7	3.9	3.9	
SK텔레콤	0.6	-0.6	-9.0	-3.5	15.8	11.6	0.8	0.8	4.3	4.3	
KT	-0.7	-1.5	-4.4	-2.0	10.3	9.1	0.5	0.5	4.1	4.2	
LG유플러스	3.0	1.5	-0.4	-4.1	13.5	11.6	0.9	0.8	3.0	3.0	
AT&T	0.2	-0.9	11.7	16.7	10.6	10.3	1.5	1.5	5.4	5.5	
Verizon	0.1	-0.1	4.8	2.0	12.5	12.2	4.1	3.5	4.1	4.2	
T-Mobile	2.0	0.2	0.1	7.9	19.9	16.5	2.4	2.2	0.0	4.5	
Sprint	5.8	-6.0	-9.6	5.2	87.9	N/A	0.9	1.0	0.0	0.0	
NTT Docomo	2.0	2.3	9.8	24.4	14.4	16.1	1.8	1.8	3.8	4.2	
KDDI	0.8	2.7	3.1	23.4	11.6	11.2	1.7	1.6	3.4	3.8	
Softbank	0.9	-14.1	-20.9	-27.6	7.2	7.3	1.3	1.0	0.5	1.1	
China Mobile	1.3	-1.3	-4.7	-13.5	11.1	11.1	1.1	1.1	4.7	4.7	
China Unicom	2.6	2.2	5.5	-11.9	18.5	13.7	0.7	0.7	2.1	2.8	
China Telecom	1.7	-0.8	-1.9	-13.0	12.1	11.4	0.8	0.7	3.5	3.7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0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2%p 수익률 기록하며 Marketperform 보조금 경쟁 둔화 우려가 잦아드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관망세. 미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 수출허가 면허 발급 건을 승인하면서 화웨이 제재 우려 완화.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순매수, KT,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은 LG유플러스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16일 오전 10시에 공정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 LGU+-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최종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에 주목. 교차판매 금지, 가격 인상 금지, 강제 전환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공정위 승인 이후 과기정통부가 최종 확정. 승인 시 미디어 산업 내 통신사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	7	8	9	10	11 LG전자, 'V50s 씽큐' 출시	12
13	14	15	16 공정위 전체회의 (10:00)	17	18	19

3 주간 뉴스

▶ "트럼프, 中 화웨이 수출허가 면허 발급키로...그린라이트 켰다

(아시아경제)

- 9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기업에게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수출면허 발급 승인. - 6월 수출 면허를 통해 제재 완화키로 했으나 8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면 유예한 경험. - 8월 말을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접수되어 있는 면허 발급 신청 건수는 100건 이상으로 파악. ⇒ 미중은 10~11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1단계 합의에 도달. 향후 5주 동안 제한적 합의 마무리. ⇒ 고위급 회담에서 화웨이 이슈는 다뤄지지 않은 상황. 화웨이 제재는 무역전쟁과 별도라는 입장.

▶ 이통3사, V50S 지원금 최대 35만원...전작보다 줄어

(아이뉴스24)

- 이통3사는 11일부터 V50S 판매를 개시하며 지원금 규모 공시. 전반적으로 전작(V50) 대비 감소. - SKT는 최대 32만원(전작 77만원), KT 35만원(전작 60만원), LGU+ 33만원(전작 61.5만원). - 요금구간별 공시지원금은 전부 24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선택적정할인액의 총합보다 적은 상황. ⇒ 규제강화로 5G 지원금 경쟁은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3Q 실적까지는 비용 우려 지속. ⇒ 25일 아이폰11 출시가 예정. 다만, 5G 모델 부재로 지원금 경쟁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판단.

▶ SKT-컴캐스트, 기업가치 1100억원 e스포츠 전문기업 설립

(ZDNet Korea)

- 11일 SKT와 컴캐스트는 파트너십 체결 및 e스포츠 전문 기업 'SK텔레콤 CS T1 주식회사' 설립. - 최대주주는 55% 지분 SK텔레콤. 컴캐스트와 하이랜드 캐피탈이 492억원을 투자해 2,3대 주주. - 양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및 기술 활용하여 게임 방송, 콘텐츠 제작, 굿즈 판매 등을 진행할 방침. ⇒ T1은 e스포츠 팀도 기준 3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확대. 광고, 스폰서십 등 신규 사업 추진 예정. ⇒ ICT기업으로의 전환 및 콘텐츠 강화라는 SK텔레콤의 사업 방향에 걸맞는 파트너십이라는 해석.

▶ 中 5G 예약고객 1천만명 넘어...이달 첫 요금제 공개 관측

(연합뉴스)

-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이통 3사에 5G 서비스 예약 신청을 한 고객이 약 1천만명을 돌파. - 지난달 20일부터 5G 예약 신청 접수. 데이터 무료 제공 및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시. - 다만, 상용화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 ⇒ 업계 예상을 뛰어넘는 예약 수치. 이달 내 5G 요금제도 공개될 예정. 5G 프로모션 지속될 전망. ⇒ 인구, 국토 규모가 큰 중국에서는 향후 2~3년 간 5G 망 투자 필요. 관련 통신장비주 수혜 예상.

▶ 1천개 중소기업에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보급 추진

(연합뉴스)

- 내년부터 3년간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전국 1천개 중소·중견기업에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 - 올해 12월까지 5G 솔루션 실증을 마치고, 산업용 단말기 200개 개발 후 내년 상반기 상용화 지원. - 이통사들이 관련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현행 신고제 대신 규제샌드박스 적용 추진. ⇒ 4차산업혁명의 '5G+' 전략의 일환. 정부 주도로 5G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통사들의 수혜 예상. ⇒ 5G는 장기적으로 B2B 사업이 중요. 내년 상반기 예정인 SA 상용화와 함께 B2B 시장 개화 전망.

▶ 통신사 부정당제재 임시 정지됐다

(전자신문)

- 이통3사는 부정당제재 효력정지 거치분을 신청한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효력 임시집행정지 신청. -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KT·LG U+는 이달 30일까지, SKB는 18일까지 부정당제재 이행을 연기. - 진행 중인 효력 정지 거치분 신청 판단에 시일이 소요되면 공공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근거. ⇒ 기존 일정대로 5일부터 이행했다면 이달 중 기존 회선사업 재입찰 등 주요 입찰에 참여 불가. ⇒ 거치분 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부정당제재 이행. 인용되면 제재 효력 정지 및 본안 소송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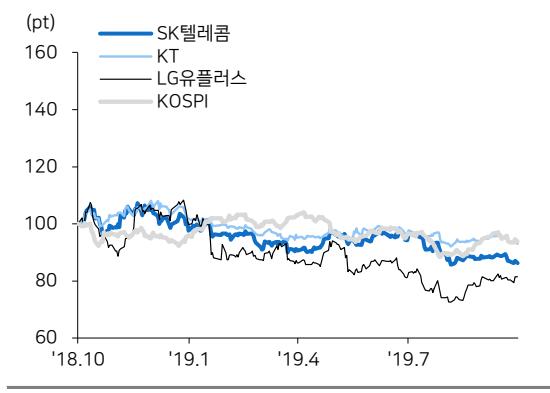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한국	SK텔레콤	236,500	16.2	15.0	15.6	1.1	1.2	1.0	1.3	4.2	4.4	5.5	5.3	5.0	6.4
	KT	26,900	6.0	20.2	20.7	1.0	1.1	0.6	0.6	4.0	4.2	2.6	2.5	5.1	5.7
	LG유플러스	13,900	5.1	10.6	11.0	0.6	0.6	0.4	0.4	2.3	2.5	3.3	3.0	6.5	7.3
미국	AT&T	37.6	274.6	182.4	182.9	37.1	37.9	25.0	25.6	60.0	60.5	7.8	7.8	12.5	12.6
	Verizon	59.9	247.9	131.3	133.0	31.3	32.2	19.5	20.4	48.1	49.2	7.9	7.8	34.6	30.4
	T-Mobile	79.5	68.0	45.3	47.5	5.8	6.9	3.4	4.1	13.2	13.8	8.2	7.9	11.6	14.5
	Sprint	6.4	26.3	33.4	32.8	2.7	2.1	0.3	-0.4	12.6	11.6	5.3	5.8	1.2	0.2
일본	NTT Docomo	2,870	88.3	43.2	42.7	9.0	8.0	6.2	5.5	13.7	13.4	6.4	6.8	12.6	11.1
	KDDI	2,966	64.4	46.5	48.1	9.2	9.5	5.6	5.8	14.4	15.5	5.4	5.1	15.5	14.2
	Softbank	4,156	80.1	86.2	90.2	16.5	11.4	10.8	11.2	27.6	25.9	8.1	8.8	14.6	15.4
중국	China Mobile	66.6	173.8	104.8	107.4	15.9	16.0	15.4	15.6	40.3	41.1	3.1	3.0	10.0	9.7
	China Unicom	8.7	33.9	41.1	43.3	2.0	2.8	1.8	2.4	13.1	13.8	2.6	2.4	4.1	5.3
	China Telecom	3.7	37.9	54.4	56.5	4.5	4.7	3.1	3.3	16.1	16.5	3.2	3.1	6.4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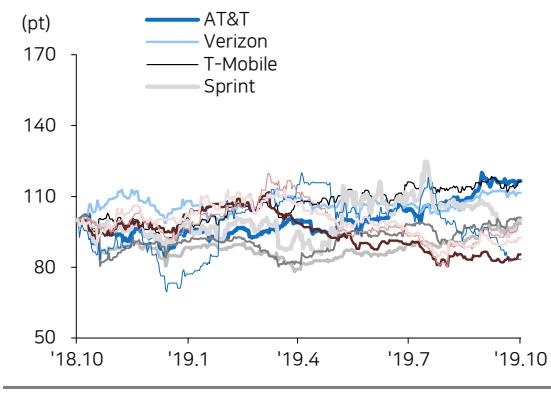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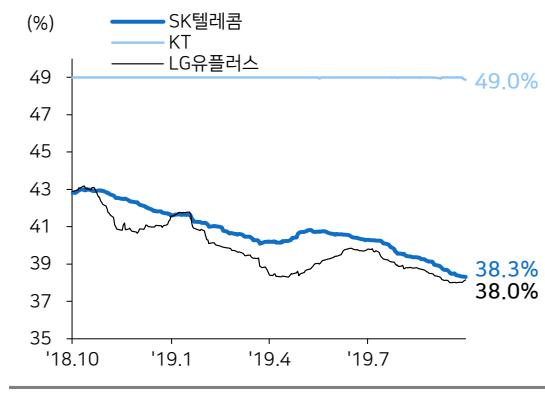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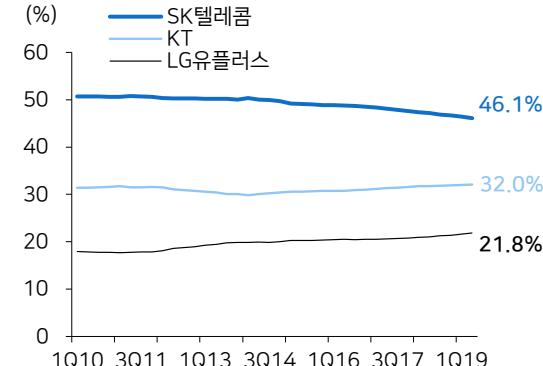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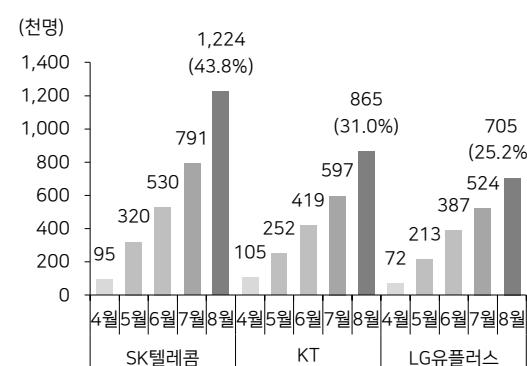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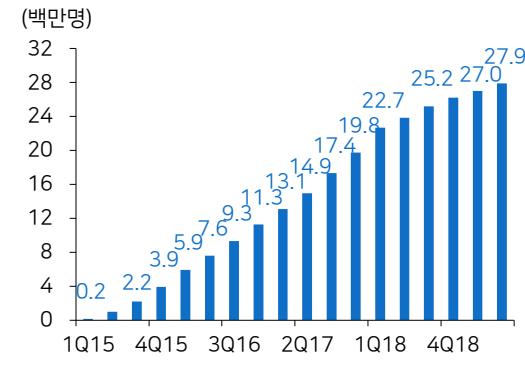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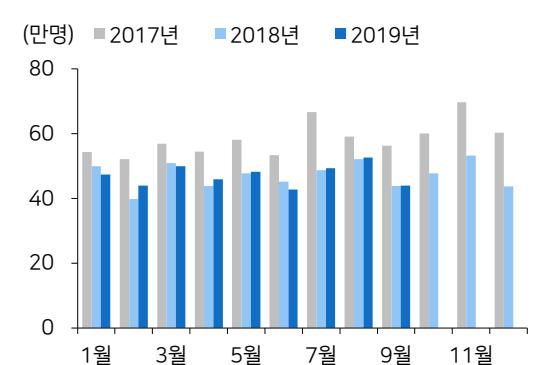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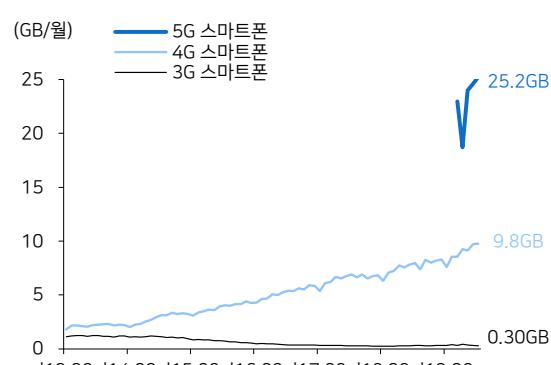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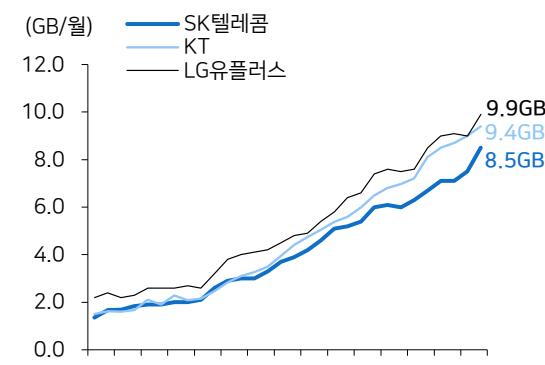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